

증권 다이제스트



KB증권 ELS·DLS 등 11종 공모

KB증권은 오는 9일까지 3개 기초자산(Nikkei225·HSCEI·Eurostoxx50)으로 연 4.45%(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380호(3년만기·6개월 단위 조기상환)' 등 주가연계증권(ELS) 8종, 파생결합증권(DLS) 3종 등 총 11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Nikkei225지수와 홍콩항셩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B able ELS 380호(3인덱스 챔피언 울트라 스텝다운형)는 노 낙인(No Knock-In Barrier) 구조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를 주며, 최고 연 4.45%(세전, 챔피언 조기상환 시 연 6.675%)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스톡기프트' 오픈 기념 주식 선물 이벤트 진행

신한금융투자는 주식, ETF를 기프트콘처럼 쉽게 선물할 수 있는 '스톡기프트'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이용 고객들에게 ETF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3월 30일까지 진행한다. 7일 밝혔다. 주식 선물하기 이벤트 '기프트콘 대신 주식! 주식 선물하고 나도 받고!'는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우선 '스톡기프트' 서비스를 통해 주식 또는 ETF를 선물하는 고객들에게 KODEX200 ETF를 추첨으로 제공하고, 이용 고객 모두에게 TIGER 원유선물 ETF 1주를 지급한다.

/김문호 기자



NH투자증권 5월까지 해외투자 이벤트

NH투자증권은 오는 5월 31일까지 해외펀드 및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표적 이벤트는 해외상품 가입 이벤트이다. 이벤트 기간 중 5000만원 이상 추천 해외펀드를 가입하거나 해외주식을 매매하면 백화점 상품권(3만원권)을 제공한다. 추천해외펀드는 NH투자증권이 수익성, 안정성, 운용역량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해 상위등급을 분류하고, 그 중 리서치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시장 및 트렌드에 부합하는 펀드를 최종 선정한다.

/김문호 기자

# 정지원 “코스닥, 모험자본의 산실로 재도약”

〈한국거래소 이사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2018 한국거래소 운영방향 발표 KRX 지주사 전환 재추진 가능성 실적-성장잠재력 상장요건 개편

국내 주식시장의 정규장 개시 전 호가 접수 시간이 올해 하반기 중 30분 가량 단축된다. 또 지난해 무산된 한국거래소(KRX) 지주회사 전환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한국거래소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로 시가 단일가 매매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거래소는 정규장 개장 전 1시간 동안 호가를 받아 단일가로 매매를 체결하는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을 오전 8시 30분~9시나 오전 8시 50분~9시 등 30분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장 개시 전에 전일 증가로 매매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취임 100일 기념간담회를 갖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체결하는 '시간외종가 매매'는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과 겹치지 않게 하면서 역시 운영 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30분 가량 줄일 계획이다.

이런 개편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정규장 개장 전 주문을 낼 수 있는 시간은 적어도 30분 이상 줄어들 것이다.

거래소는 시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이 해외에 비해 길어 호가 집적도가 떨어지고 체결 예상가와 당일 시가 간에 상당한 가격 차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고 시장 운영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이 독일이나 영국은 10분이고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30분이다.

거래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된 뒤 테스트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위원장과 본부장을 분리하는 조치는 이달 중 정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3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넥스협회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추천을 받아 3월 중 선임할 계획이다. 코스닥본부에는 상장심사, 공시 등 4개 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2013년 코스닥시장위원장과 본부장을 분리했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위원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고 본부장은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코스닥시장위원장은 혁신 모험자

본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가 추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이 모험자본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상장 요건도 손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적 중심에서 성장 잠재력(시가총액, 자기자본 등)을 중심으로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재편키로 했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상장심사도 다양화한다. 이에 약 2800개사가 추가로 상장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전환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 이사장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지주회사 전환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던 만큼 아직까지 유효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통화와 관련, "젊은 2030 세대가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거래를 많이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2030 세대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똑똑한 세종시 만드는 'LH'

LH,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실시 민간참여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4차산업혁명 기술·빅데이터 활용

LH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5-1 생활권에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LH는 6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H-민간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개발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9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LH가 개발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274만1000㎡)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발표한다.

LH는 스마트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시골격을 만든 후 민간참여를 위한 규제 해소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대폭 수용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시범도시가 들어서는 세종시 5-1생활권은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드론, BIM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과 안전, 보건, 행정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적극 도입한다. 또한 도시 빅데이터(Big-Data) 구축·활용을 통한 시간·에너지·자원 효율을 높인다.

이날 회의는 스마트시티를 주도해 나갈 14개 분야 80개 민간업체, 23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사업계획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LH 관계자는 "스마트시티는 4차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통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산업"이라며 "LH와 민간의 협업개발이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 키워드이므로 다양한 업체들의 적극성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단순한 주거위주의 신도시 건설이 아닌, 국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핵심 전략과제임을 감안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H는 3월 중으로 'LH-민간 협의체'를 발족,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요구사항을 평택고덕·위례 등 5개 특화단지과 성남고동·고양항동지구에 반영·검증해 이번 시범사업에 최종 도입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조감도. /GS건설

GS글로벌 컨소시엄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시행자로 선정

GS건설이 참여한 GS글로벌 컨소시엄이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로 7일 선정됐다.

이 사업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며 GS글로벌 컨소시엄의 참여사 비율은 각각 GS글로벌 40%, GS이엔엘 40%, GS건설 10%, 쌍용로지스틱스 10%이며, 시공 대표사는 GS건설이다.

강원 동해시 구호동 동해지구 전면해상에 10만급 선박의 정박이 가능한 석탄부두 1선석(L=330m), 관리부두(L=256m) 및 배후부지 약 11.2만㎡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예상사업비는 2740억원,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 후 국가에 귀속되며, 총 사업비 만큼 부두를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동해항에 운영 중인 석탄부두의 하역능력은 연간 361만t 규모다. 그러나 석탄물동량의 꾸준한 증가, 2020년 이후 동해항에서 처리해야 할 석탄물동량은 연간 약 90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가 건설되면 동해항은 추가로 연간 540만t 이상의 석탄 물동량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GS글로벌 컨소시엄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양질의 민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중이며, 이번 사업이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됐다"며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 글로벌 투자 전문가 키운다... 中 알리바바 탐방

미래에셋대우 WM직원 30명 참가 올해 200여 명 전문가 양성 계획

미래에셋대우는 2월 초 글로벌 투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박 5일간의 해외기업 탐방 연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WM직원 30명이 참석했으며,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해 기업문화,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오프라인·물류'가 결합된 신유통의 미래, 클라우드 빅 데이터 플랫폼 등 4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 학습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투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100시간 이상의 집합교육과 선진 해외기업 탐방 등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돼 있다.

분기마다 개최되는 글로벌주식포럼을 통해 영업직원들에게 글로벌 시장과 분기별 추천종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원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해외 연수에 참여한 WM직원들이 알리바바 빈저 캠퍼스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해외 연수에 참석했던 이주일 청주WM 선임매니저는 "리포트나 포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해외기업에 대한 정보를 직접 탐방을 통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며 "이와 같은 연수 과정이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연말까지 글로벌 투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0명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정유인 미래에셋대우 인재개발본부장은 "미래에셋대우가 고객에 대한 신뢰를

실천하는 길은 전문 인력을 꾸준히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의 해외주식자산은 지난 1월 26일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올 초 1조 1534억원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글로벌 투자 전문인력 육성, 양질의 해외주식투자 콘텐츠 제공,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해외주식자산 증대에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김문호 기자